

# “눈물 뿌린 이별가” 검제 할머니의 내방가사

검제 할머니(의성 義城 김씨 金氏 우모羽模, 1874~1965)는 안동 서후면 금계(속진 검제)에서 문충공 학봉 김성일(文忠公 鶴峰 金誠一) 공의 10세손 진형(鎮衡) 공의 두 아드님 세락(世洛), 희락(繪洛) 공 중 맏이인 세락공의 무남독녀로 태어나서 1886년 13살 때 14살이신 저의 할아버지(치암痴庵 동만東萬)에게 시집 오셔서 슬하에 2남 2녀를 두시고 1965년 10월 20일 향년 92세로 돌아셨는데 당시 보통 양반대 여자분들의 일생보다 조금 특별하게 사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태어난 환경이 조부 진형(鎮衡, 호 겸와謙窩) 공은 의성 김씨로 조선의 마지막 대과 급제자이고 동부승지와 도승지를 지내시다가 철종 때 함경도 북청으로 귀양 가면서(이때 지은 가사 북천가가 교과서에 실림) 물러나신 분이시고 할머니 아버님인 세락(世洛) 공께서 16세에 초취한 한산 이씨가 시집 오자마자 돌아가시고, 재취한 안동 권씨는 23세에 오셔서 36세에 무육으로 돌아가시고, 46세에 삼취한 23세인 초계 변씨가 오셔서 얻은 첫딸이 할머니이다. 당시에는 20대에 자식을 낳던 시대에 50대에 첫 자식을 얻었으니 더구나 고관대작 집에서 얼마나 경사스러웠겠는가 불문가지다. 그래서 조모인 숙부인 진주 강씨가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는데 심지어 담배꼬리에 담배를 넣고 화로에 불붙여 할머니에게 드리는 것까지 시켰으니 담배에 인이 들어 13살에 시집오실 때 가마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피우셨다.

글도 배우셔서 평소에도 명심보감 문장은 말할 것 없고 대학지도(大學之道)는 재명명덕(在明德) 아니하고 대학을 외우시고, 관관자구(關關雎鳩)는 재하지주(在河之州)하시며 시경을 외우셨다. 정치적인 이야기, 즉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원군시대에 조부님이 고관대작을 지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원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민비가 나쁘다고 하시고, 심지어 민비 고년 때문에 대원군이 중국에 잡혀갔다고까지 하셨다. 할머니가 시집오시고 다음 해 할머니 선고께서 돌아가시고 한 분뿐인 삼촌 희락(繪洛) 공은 1896년 6월 의병대 포장으로 안동에서 총살 당하였다.(나중에 훈장 추서) 검제 문중에서 대과집에 주순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둇지 양자를 한 오빠 익모(羽模) 공은 파리장서로 애족장, 조카 연환(連煥) 공은 만주에서 국내로 자금조달과 폭탄을 제공하였고, 당숙 서산 흥락(興洛) 공은 의병대

장이고, 재증질 용환(龍煥) 공은 광복군 자금을 대는 독립운동가였다.

5,600년대 당시 저녁에는 동리 안방에 여러분이 모이면 각 동리에서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할매, 아저께, 조카, 친구, 동서, 형수로 오신 분들이 은근히 각자 친정집 음식이나 양반 자랑을 하다가 할머니가 들으시면 너희 집은 무슨 벼슬했느냐고 한마디 하면 모두들 꼼꼼 못하는 것을 보았고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셨는지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 윗노시다가 질 것 같으면 손으로 윷가락을 방바닥으로 짹 깔아 모를 몇 개나 만들었다. 그러면 안된다 해도 막무가내였다. 이런 할머니가 머느리들한테 큰소리치시다가 6.25 전쟁이 나고 둘째집 손자 남매(나와 동생 영이)가 부모 없이 큰 집에 와서 백부모님께 얹혀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셨겠는가. 내가 13살 풍서 학교 졸업하던 봄에 가출할 때 또 내 동생 영이가 대구로 가출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더구나 둘째 아들인 우리 아버지(오현五憲)가 일제 때 독립 운동하시다가 감옥에 가시고 해방 후 치안유지회 때문에 다시 대구형무소에 들어가신 것까지는 아셨으나 돌아가신 것을 누구도 가르쳐 드리지 않아 모르셨지만 짐작은 하고 계셨고 우리 어머님이 형과 누나(창, 경자)를 데리고 서울을 사창학(경학景赫) 대에 있다가 월북한 게 분명한데도 소식이 없으니 늘 걱정이었을 것인데 집에 있는 손자 남매가 말을 안 들고 놀기만 하려고 하니 당시 90노인이셨던 할머니가 집 뒤 골목을 지나 감호대 감나무 밑까지 오셔서 “근아”하고 소리치시면 큰집이나 동쪽에 놀다가 우산아지매나 도정아지매가 거 귀이 있나? 할매 부르신다 하고 가라 하면 투덜거리고 오기가 몇 번이나 되었던가 지금 생각하면 죄송스럽기만하다.

시집오시고 원당에 살립집을 지어 사시다가 1934년 갑술년에 할머니 회갑을 맞아 가일에서 원당까지 시부모님 우암공 삼형제 분과 종반 8촌까지 54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사진을 찍은 것이 유일하게 남은 집안 사진이다.

일제 시 백부님은 북간도 유화현 고산자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 집은 흑룡강성 하얼빈에서 북만 약초회사를 하였으니 늙어서는 자식을 따른다고 67세나 되신 노인분들이 만주로 이주 하시려니 얼마나 슬프셨을까? 이때 “눈물 뿌린 이별가”를 지으셨는데 가사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다. 이 가사 원본을 몇 해 전 대인 군이 찾아가지고 있는

데 기쁘기가 한량없었다. 이 가사를 일제 시 망명한 여성분들의 귀중한 자료로 연구하는 대학교수나 독립기념관에서 찾아와도 원본을 보여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고 어느 분 회갑에서 축수한 “축수기”와 가사 몇 편이 있었으나 다 찾지 못해 안타깝기만 하다.

여기 “눈물 뿌린 이별가” 일부를 소개합니다.

## “눈물 뿌린 이별가”

### 중략

한양 조선 삼길 적에  
터를 닦아 집을 짓고  
억만세 누리려고  
당파싸움 시작해서  
타당 인재 제쳐놓고  
치세는 드물었고  
물건너 왜놈들이  
오역과 칠적들이  
정치를 한다는 게  
서럽도다 서럽도다  
아무리 살려해도  
충군애국 다 팔아도  
효우를 다 팔아도  
가자 가자 나도가자  
가자 가자 너도가자  
고국을 떠나가니  
백발 노인 두노인도

### 중략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부모 분묘 다버리고  
동기 숙질 다 버리고  
여보소 봉우들아  
각처에서 모여들어  
생사를 같이하자  
양안에 눈물어려  
이제가면 언제 옮고

### 중략

가일아 잘있거라  
정신이 둘러있고  
동구에 뭇이 있어

### 중략

다시 볼수 있겠느냐?  
낙장장송 우거진데  
팔 대지에 하나로다

데 기쁘기가 한량없었다. 이 가사를 일제 시 망명한 여성분들의 귀중한 자료로 연구하는 대학교수나 독립기념관에서 찾아와도 원본을 보여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고 어느 분 회갑에서 축수한 “축수기”와 가사 몇 편이 있었으나 다 찾지 못해 안타깝기만 하다.

여기 “눈물 뿌린 이별가” 일부를 소개합니다.

## “눈물 뿌린 이별가”

### 중략

삼각산하 서울에다  
만호장안 되었더라  
좋은 정치하려 하니  
한당파 득세하니  
상놈 인재 배어놓고  
난세는 허다하다  
그틈타서 건너오니  
합세하여 나라뺏고  
백성이 도탄이라  
망국 백성 서럽도다  
살수가 바이 없네  
먹을길 바이 없고  
살아날 길 바이 없네  
애국하는 사람 따라  
돈 골병든 사람들다

### 중략

조상님이 혁혁하고  
이 좋은 명기에서  
못 물에 뜬 부평초야  
여기 살다 저기하고  
가일 동네 저 못뚝에  
너희남자 소리듣고  
이 어디로 간단 말가  
가기도 가지마는

### 중략

오백년을 살았도다  
나는 어찌 떠나가며  
내 신세도 너 같구나  
저기 살다 어디갈꼬  
행상 우에 높이 누워  
선영 계하가렸더니  
북국나라 간다하네  
오기도 할것인가

###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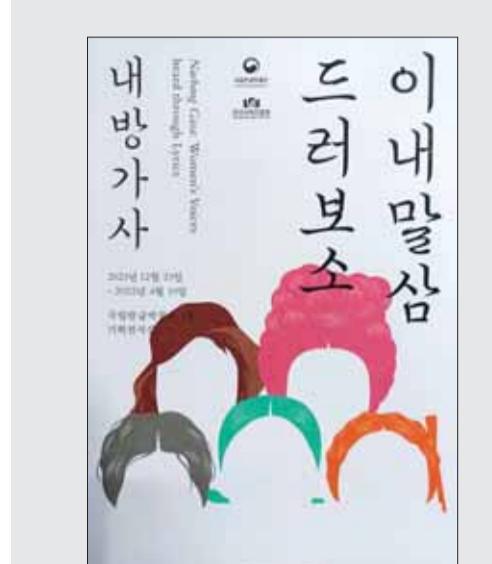
썩은고목 저 등치야  
너는 썩어 자빠지면  
이 내 몸 엎어지면  
가련하다 이내 설수

### 중략

너와 나와 일반이냐  
고향 사람 치우련만  
고향 사람 누가 볼고  
통곡하니 가이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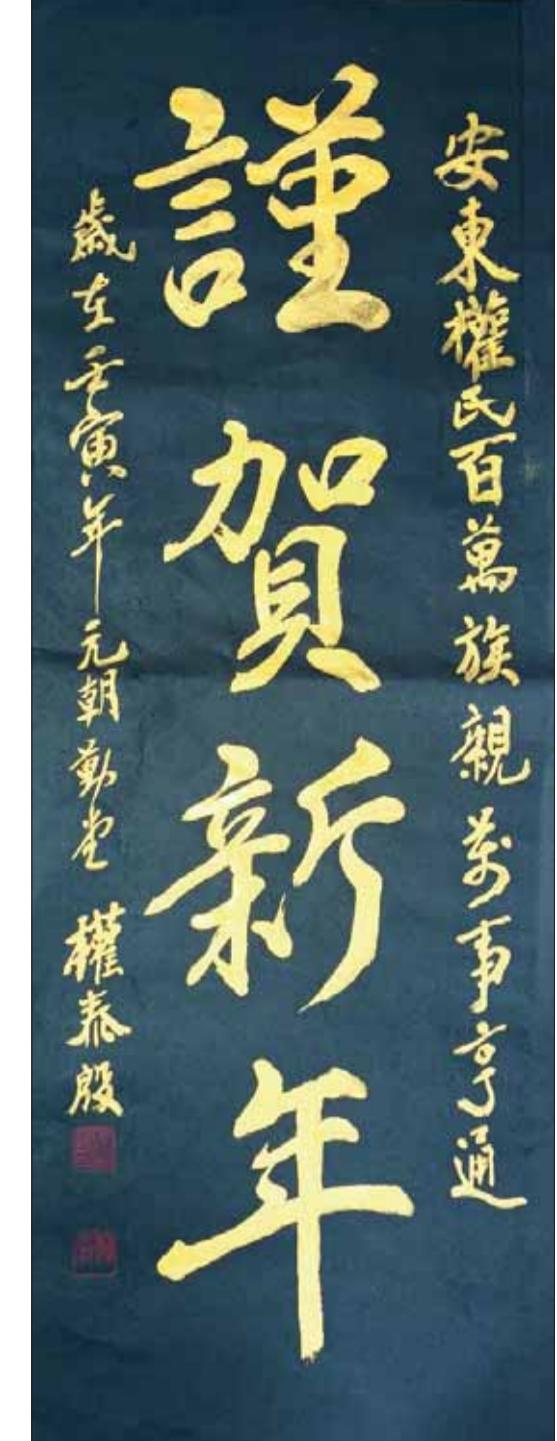
### 중략

둘째집 손자 대근大勤



### □ 전시안내

위에서 소개한 검제 할머니의 “눈물 뿌린 이별가” 등 안동권문의 말과 며느리 4명을 포함하여 “이내말씀 들어보소”라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4월 10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내방가사는 여성들이 슬픈 슬픈 대로 기쁜 대로 한글로 자신의 삶을 소박하고 진솔하게 쓴 가사입니다. <편집자주>



## 근하신년 안동권씨 백만 족친 만사형통

임인년壬寅年 원조元朝  
근당勤堂 권태은權泰殷

## 인문학 이야기(4)

권용만 교수(심리학, 철학박사, 38세, 부정공파)



### 하다.

즉 자신의 상태와 감정과 의사를 다른 사람, 즉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가족(Family, 가장 잘 알고 친숙한 사이)일지라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곧 나의 의사전달(I message)이 아닌 너의 의사(I message)를 우회하여 묻는(You message) 방법을 선택하여 말하는 것이 양방(나와 상대) 모두의 나르시시즘을 만족(滿足)시켜 주는 방법이다.

이것이 곧 회평과 존중과 배려를 부르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여 위의 감정의 발전단계 중에서 ‘매 순간의 감동의 단계’를 의식적으로 연출하는 마음과 말과 행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감정의 통제훈련(The training of one's emotion)이 되지를 않으면 매사에 싸움닭이 되어 버려서 본의는 아니지만 소중한 인연(因緣)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비록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지라도...

예를 들어보면, 도처럼 동창모임에 와출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 마디로 “오늘 입술 루즈 색깔이 왜 그래? 치마는 왜 그렇게 짧아! 그 뺨강색 구두는!” 등등으로.

그 아내는 하루의 기분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왕이면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칭찬하였으면 좋지 않은가! “아, 오늘 보니 당신 한 낍년은 젊어 보이네요. 용드릴 테니 오늘 식사 후에 커피는 당신이 동창들에게 대접 하세요!” 등등 그 반대의 경우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아내는 속으로 감동(感動)을 하고 기세등등(氣勢等等)하여 웃노래 부르며 집을 나서지 않았을까! 그날 모임은 기분이 좋게 마치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는 결코 저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 모두의 당면한 문제라는 것이다. 실언과 실수의 정도(程度)의 차이가 다를 뿐이지, 우리들 자신이 어제도, 오늘도 ‘나’ 아닌 사람들의 나르시시즘에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생각이 짧은(철학 하지 않고, 생각 못하고 행위로(심리학으로) 깊이 사고치 않고 한 말) 상대의 아픈 상처 위에 소금을 끼얹은 일

또 다른 예로서, 저녁식사 준비를 마친 아내가 거실에서 프로야구 중계를 보는 남편과 아이들을 향해 “여보! 식사하세요. 예들아 밥 먹어” 그러나 그 말이 저들에 들릴 리 없다.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이 참 식사하리니깐요. 너희들 밥 먹으란 소리가 안 들려!” 9회 말, 만루에 안타 한 방이면 역전인 상황에서 엉거주춤 일어난 남편과 아이들을 향한 아내의 한 마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저놈의 티비를 부서버리든지. 밥 먹기 싫으면 관둬!” 이 시간 남편과 아이들은 밥을 먹었어도 소화불량이 왔으리라.

큰 소리 친 아내의 마음도 편치 않음은 물론, 그 반대로 아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저녁밥이 온 가족의 평안히 식사하여 건강한 하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자신의 상황을 조금만 양보하여 다가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과 아이들에게 You message를 전달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면 그 날 저녁식사가 보다 맛있고 화목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화합과 화목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즉, 서로의 감정의 상태가 다른 것을 인지하고 우리들 내면의 감성이 보다 더 아름답게 작용하여 자신이 타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코로나 불우와 같은 시대적 환경과 조건들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의 사람, 깨달음(기독교에서는 아가페 사랑, 불교에서는 보리살타의 줄임말인 보살, 菩薩)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로서가 익히고 배워야 할 것이다. 탈무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답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의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자’이다.

우리는 비로소 누구나 다 늙어 가지만 낡지는 말아야 한다. 나무는 나이가 들면 그 흔적을 나이테(Annual ring)로 남겨 놓는다.

여러분의 나이에는 몇 개인가요? 그 나이테(年輪)는 둑글고 원만하게 남아 있나요? 아니면 모(鉢)가 나고 한 쪽으로 쏠리어 있나요? 그러나 어찌 하리요. 지난간 세월은 돌아킬 수가 없으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후회 없이 배워서 깨닫아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한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오히려 늙은 가운데 새롭게 새롭게 되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네 삶은 늙음에 무게가 있고 또한 깊이가 있고 낡음이 있다.

그러나 늙음(후폐, 柄敗)은 곧 생명의 끝을 의미하고 더 이상의 새로운이 없으니 글자 한 획의 차이일지라도 그 의미는 천양지차(天壤之次)가 아닐 수 없다.

우리들 모두는 늙음으로 가는 길에 마음의 늙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늘 ‘밝은 철학으로 생각하고 바른 심리’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조심하고 자성(自省)하여 자신을 뒤틀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길은 늙어(후폐)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짐(성서의 가르침)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이요, 길이 늙고 속도 낡아지면 추한 삶이 되는 법이다.

세월 속에서 늙음은 지식의 발효(發酵)가 우리들에게 지성(知性)과 덕성(德性)을 더하고 지혜의 원천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심성(心性)은 우리들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의 대가 없는 아가페(Agape)적 사랑과 자비(慈悲)로 하루하루의 삶을 선(善)한 것들로 점(Marking)찍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보다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혜를 따르는 우리들의 영혼의 색이 족족이 젖어 생각의 씨앗을 아름답게 길러내어 보도록 하자. 결코 영혼이 축축하게 젖어 후폐로 낡아지지 않도록 마음의 창들을 밝은 진리의 태양을 향하여 열어보자!

모조록 이렇게 자신이 느끼고 깨닫어서 얻은 지혜로운 생각의 결과물들을 타인에게 바르고 선하게 나누어 주는 삶이 되시기를 고대하여 본다. 모범(模範, Sample)이 되는 삶,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나이테만큼의 지식과 지혜의 실천이 습관적 양식(樣式, Method)이 되어야 하고 또한 선한 도구(Instrument)가 되어서 자신의 날은 인생과 타인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철학으로 생각하고 심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는 그렇게 어려운 명제가 아니라, 오늘 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금만 더 진중하게 사고하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결과를 함부로 가볍게 말로 표현하지 말며, 경솔한 행동을 지양(止揚)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더욱 알자고 내실(內實)이 있는 것으로 영위(營爲)해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삶에도 선한 영향을 주는 인생이 되어 가자고 호